

# 정율성과 윤이상이 만나는 실내악의 밤



### 16일 통영국제음악당서 광주시향-TIMF앙상블 협연 내달 13일 광주유스퀘어문화관 공연... 11월 심포지엄

정율성과 윤이상, 광주와 통영의 대표 음악가를 한 자리에서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통영국제음악재단과 공동주관으로 통영 출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과 광주 출신 중국 3대 혁명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을 재조명하는 교류 음악회를 오는 16일 오후 3시 통영국제음악당과 7월 13일 오후 7시 30분 광주유스퀘어 문화관에서 개최한다.

광주-통영 문화교류의 일환인 이번 교류 음악회는 양 도시 대표 음악가의 작품을 연주함으로써 만남과 조화를 통한 화합과 상생의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마련된다.

양 재단은 정율성(1914년생)과 윤이상(1917년생)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항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이번 교류음악회를 추진했다. 오는 11월에는 광주에서 정율성과 윤이상을 아우르는 항일 심포지엄도 추진할 예정이다.

통영국제음악제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전문연주단체 TIMF앙상블, 광주 클래식 문화를 이끌어가는 광주 시립교향악단과 지역 성악가들이 출연해 성용원 '평화

의 비둘기 주제에 의한 피아노 오중주', 윤이상 '노래', 김선철 '목관과 현악을 위한 6중주 아랑에게', 윤이상 '환상적 단편'을 연주하고, 합주로 윤이상 '현을 위한 용단'과 정율성 오페라 '망부운' 중 '아! 수려한 풍경이여', 가곡 '연안송'을 연주한다.

정율성은 중국에서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의열단에 가입해 활발한 항일투쟁을 펼쳤으며, 그의 대표작 '팔로군행진곡(1998년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정식 '중국인민해방군가'로 공식 지정)'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노래의 역동성에 항일이라는 시대성이 남은 결실로 손색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다.

통영이 낳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음악가인 윤이상은 동배를린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며, 이후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음악적으로 표현한 교향시 '광주여 영원히', '화염 속의 천사'와 같은 음악으로 인권 문제를 환기시켰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전화 사전 예약 후 관람할 수 있다.

통영 공연 예약 문의 055-650-0426, 광주 공연 예약 문의 062-670-7469. /이보람 기자

## 퓨전국악뮤지컬 '세종 이도의 꿈'

극단 오렌지컴퍼니, 10개 도시 투어 공연

### 내일 영암 영애원서

극단 오렌지컴퍼니가 오는 15일 영암 영애원에서 2018 신나는 예술여행 퓨전국악뮤지컬 '세종 이도의 꿈'을 공연한다.

'세종 이도의 꿈'은 어린 시절 글을 몰라 힘들어하는 백성을 보고 우리만의 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과 왕이 돼 진정한 백성을 위해 어려움을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만들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

인간 세종 '이도'를 통해 바라보는 한글창제와 문화 예술을 사랑하던 세종의 이야기를 담았으며, 민국의 역사적 자존감과 민족적 긍지를 알리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총 7장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글자를 갇아 먹는 도깨비 같잖이가 한글을 먹고 배탈이 난 후,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을 그려낸다. 그곳에서 반찬 투정을 하는 어린 이도를 만나게 되고, 같잖이는 과학과 음악, 책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어린 이도와 친구가 된다. 이도는 여자 노비들의 출산 휴가제도와 의창제도, 인쇄술의 개량 등을 실시할 것으로 지시하며 신하들의 반대를 딛고 노비 장



영실을 중앙 관직에 등용시킨다. 마지막으로 모음과 자음의 체계를 만들어 마침내 한글 창제의 꿈을 이룬다.

아이들의 눈 높이에 맞는 적절한 웃음 코드가 삽입돼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국악과 뮤지컬이 결합돼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한편, '세종이도의 꿈'은 용인, 광명, 무주, 영암, 음성, 경산, 포항, 남원, 서산, 서울 등 상하반기 각 5회씩 총 10회의 공연을 펼친다.

문의 02-305-0525.

/이보람 기자

## 한여름 밤에 만나는 유·스퀘어 예술시장

### 8월까지 셋째 주 금요일 밤 개장 판매·소비 등 누구나 참여 가능

유·스퀘어가 2층 야외광장에서 기존 낮에 열던 예술시장 외에, 야시장을 추가로 개장한다.

야시장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유·스퀘어가 작년에 새롭게 선보였으며, 올해도 6월부터 8월까지 셋째 주 금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열린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유·스퀘어가 마련한 프리마켓이다. 작가들이 직접 만든 비누, 옷, 팔찌, 인테리어 소품과 예술품들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지역민들의 호응이 높다.

예술시장에서는 누구나 셀러로 참여하여 작품을 판매하거나, One Day 작업 공방을 열어 자신의 기술을 나눌 수 있다. 또한 공연을 원하는 밴드는 예술시장이



유스퀘어 야시장

열리는 날 야외광장에서 직접 공연도 할 수 있다.

한편, 매월 셋째 주 토요일 낮 11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에는 기존의 예술시장이 열리며 꾸준히 지역민들과 소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유·스퀘어 문화관 관계자는 "지역민들과 작가들에게 받은 사랑에 힘입어 야시장을 추가로 기획하게 됐

다"며 "야시장에 많이 참여해 여름밤의 추억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유·스퀘어 문화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담당자 메일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매달 1-10일까지 받고 있다.

문의 062-360-8436.

/이연수 기자

## 미디어로 마을에 활력을

### 시청자미디어센터, 화순 '화기애애 미디어교육'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박대식)는 화순 군민을 대상으로 '화기애애 미디어교육'을 본격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군민 미디어 복지 증진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화순군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군민 대상으로는 ▲울엄마가 보내는 영상편지 ▲다문화가정 라디오교육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운영되며, 마을 단위로는 ▲농촌뉴스 만들기 ▲동네방네 마을라디오 제작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마을미디어를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엄마가 보내는 영상편지'는 어르신들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영상편지를 제작해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와

SNS로 소통하는 미디어교육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5차시로 진행된다.

이주 여성의 삶과 일상을 라디오에 풀어내는 '다문화가정 라디오교육'은 8월부터 12차시로 운영되며 특히 올해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방송 체험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마을 단위로 진행되는 '농촌뉴스 만들기'와 '동네방네 마을라디오'는 정감 있는 소식과 옛이야기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뉴스 영상과 라디오로 제작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마을미디어를 활성화 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마을 특산물부터 무형문화재, 고인돌 체험 등 화순을 주제로 홍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화순 체험 테마, 뮤직비디오에 담다'가 운영된다. /이보람 기자

## 경매 투자

- ▶경매특수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특수물건만 취급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자본금 1억이상
- ▶월15% 이상 수익
- ▶소유권/근저당으로 보장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